

고용한파 속 제2금융 대출로 '나홀로 창업' 늘었다

고령층 자영업 종사자도 급상승
금리 인상 우려에 '이자폭탄' 걱정
금리 0.1% 오를 때 폐업위험 10%↑

#. 지난해 서울 연남동 먹자 골목 인근에 조그만 김밥 가게를 시작한 김 모(30세)씨는 최근 임대료 내기도 벅차다. 인근에 유명 기업형 프랜차이즈업체가 들어선 이후 간간히 찾던 손님까지 발길이 뜰해졌기 때문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다. 보증금에 보태려고 저축은행에서 빌린 2000만원 까지 날릴 수



없어서다. 그는 "다른 가계는 몇 푼 안되는 권리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빌려 창업한 원금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노량진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먹고살 걱정은 안해도 되기 때문이다.

적은 종잣돈으로 종업원 없이 '나홀로 창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제조업이 뒷걸음하면서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이 모두 3.9%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 이란 분석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종사자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이자 부담이 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한계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급격한 소비 위축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금융권)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 잔액은 15조5249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조7141억원이 늘었다.

특히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고용한파와 꽉꽉한 서민들의 삶을 읽을 수 있다.

음식·숙박업에 대한 2금융권의 대출금 증가세를 보면 지난해 1분기 5.57%, 2분기 6.33%, 3분기 5.93%, 4분기 5.08%, 올해 1분기 3.74%까지 증가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2분기에 다시 4.95%까지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금은 1조4545억원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

은이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어 '이자폭탄'을 우려한다.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영업자는 557만명이다. 소득 기반 악화로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2015)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1852만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626만원(11%) 증가한데 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하면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이 10.6%까지 높아진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숙박 및 음식업 대출〉		
	비은행취급기과	은행
2013년 3분기	62,260	108,275
2013년 4분기	63,965	112,472
2014년 1분기	64,767	118,193
2014년 2분기	66,044	123,389
2014년 3분기	71,176	126,075
2014년 4분기	74,940	132,245
2015년 1분기	76,684	137,917
2015년 2분기	79,705	144,910
2015년 3분기	83,903	149,291
2015년 4분기	85,882	156,538
2016년 1분기	89,084	160,806
2016년 2분기	95,527	165,704
2016년 3분기	99,932	169,168
2016년 4분기	114,127	172,207
2017년 1분기	120,485	175,214
2017년 2분기	128,108	178,977
2017년 3분기	135,704	182,251
2017년 4분기	142,600	185,744
2018년 1분기	147,928	188,123
2018년 2분기	155,249	193,522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정부 '클린디젤' 정책 10년만에 폐기

공공부문, 2030년까지 완전히 없애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100% 높일 것

했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쌀 목표가 19만6000원… 직불제 통합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 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kg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

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리상 금융 파트너

가족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엄마건강, 아빠건강, 아이건강...

얼마나 바라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지키고 싶은지 잘 아니까

KB손해보험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무배당 KB The 드림 365 건강보험 II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811호 (2018.04.23)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웹사이트 www.kbinsure.co.kr • 고객콜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손해보험